

“K리그1 승격 위해”…전남, 발디비아 주장으로 다시 뛴다

2년 연속 주장 선임…부주장에 최봉진·최한솔·유지한
“박동혁 감독과 열심히 준비…더 치열한 시즌 될 거 같아”

‘광양 예수’ 발디비아(32·FW)가 올 시즌에도 주장으로 전남드래곤즈를 이끈다.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2026 시즌 주장단을 선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 발디비아가 주장 완장을 쓴다. 최봉진(34·GK), 최한솔(29·MF), 유지하(27·DF)는 부주장으로 발디비아를 보좌한다.

발디비아는 지난해 주장에 선임되면서 전남의 첫 ‘외국인 캡틴’이 됐었다. 주장으로 선수단을 대표한 그는 전남 공격을 상징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2023 시즌 전남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그는 첫해부터 ‘특급 골잡이’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 해 36경기에 나와 14득점 14도움을 기록한 그는 베스트11은 물론 2023 시즌 K리그2 MVP에 등극했다.

발디비아는 2024 시즌에도 33경기에 출전해 12골 5도움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연달아 베스트 11 트로피를 수집했다.

지난 시즌 32경기에서 16골을 폭발한 그는 9개의 도움도 기록하면서 K리그2 공격포인트(25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3년 연속 베스트11으로 K리그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

발디비아는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을 물론 주장으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 사령탑을 맡은 박동혁 감독의 신임을 받았다.

발디비아는 “새로 부임하신 박동혁 감독님께서 주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영광이다”며 “올해도 작년처럼 치열한 시즌이 될 것 같다. 새로운 선수들, 스태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승격을 목표로 새출발 한 전남은 베테랑 부주장들로 무게감을 더했다.

‘수문장’ 최봉진은 K리그 통산 153경기에 출장한 팀 내 최고참이다.

지난 시즌 전남의 고민이었던 수비 안정화의 키도 된 최봉진은 부주장으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가고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원에서 임대 선수로 합류했던 최한솔은 완벽한 전남맨이자 부주장으로 2026 시즌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시즌 중반 팀에 합류해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던 그는 이번 시즌 완전 영입으로 시작부터 선수단과 함께하고 있다.

2022 시즌부터 전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지하는



전남드래곤즈의 발디비아(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년 연속 주장을 맡아 선수단 전면에 선다. 2026 시즌 주장단에 선임된 유지하(왼쪽부터). 최봉진, 발디비아, 최한솔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시즌 가장 많은 31경기에 출전하는 등 수비진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유지하는 주장단 막내로 신예 선수들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새 주장단을 꾸린 전남은 태국 방콕에서 2026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방콕에 동계훈련 캠프를 차린 전남은

오는 30일까지 체력·기술 훈련 등에 집중하면서 승격을 위한 밀그림을 그리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리지널’ FIFA 월드컵 트로피, 4년 만에 한국 온다

16~17일 체험 행사 진행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사진)가 4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팬들을 만난다.

FIFA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는 14일 “FIFA 월드컵 트로피가 오는 16일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한국을 찾는 ‘오리지널’ FIFA 월드컵 트로피는 오는 6월부터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의 우승국에 수여할 공식 트로피다.

코카-콜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월드컵의 상징인 트로피를 눈앞에서 만나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2026 FIFA 월드컵을 향한 승리의 기운을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FIFA 월드컵 트로피는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150여 일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개 FIFA 회원국, 75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한국에는 16일 들어와 같은 날 진행되는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어 17일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트로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소비자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FIFA 월드컵 트로피는 독일 월드컵이 열린 2006년 시작해 올해가 6번째다.

한국을 찾는 것은 2006년, 2010년, 2014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FIFA 월드컵 트로피는 대회 우승국에 수여되지만, 공식 소유권은 FIFA에 있다.

트로피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6.175kg으로 1974년에 디자인됐다. 두 명의 선수가 지구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현재의 FIFA 월드컵 트로피는 1974년 서독 대회부터 우승국에 수여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포츠 상징 중 하나로 꼽힌다.

오리지널 트로피는 FIFA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와 국가수반 등 매우 제한된 사람만 만지거나 들 수 있다.

FIFA 월드컵 우승국은 일정 기간만 오리지널 트로피를 소유할 수 있으며 FIFA가 회수한 뒤에는 해당 대회 개최년도, 개최국, 역대 우승국이 새겨진 ‘FIFA 월드컵 워너스 트로피’를 영구 소장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민성호, U-23 아시안컵서 우즈베키스탄에 0-2 완패

이란 패배로 행운의 8강

이민성호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졸전 끝 완패를 당했으나 운 좋게 8강에는 진출했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프린스 파이살 빙 파흐드 경기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얻어맞고 0-2로 졌다.

이란과 1차전에서 0-0으로 비기고 레바논과 2차전에서 4-2 승리를 거둔 이민성호는 이로써 1승 1무 1패로 승점 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같은 조 다른 경기에서 최약체로 분류되던 레바논이 이란을 1-0으로 잡는 이변을 일으킨 덕에 이

민성호는 조 2위에 오르며 8강에 진출했다.

만약 이란이 레바논에 이겼다면 한국이 아닌 이란이 조 2위로 8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

예상 밖 패배를 당한 이란은 승점 2(2무 1패)만 따내는데 그쳐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즈베키스탄은 2승 1무(승점 7)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레바논이 1승 2패(승점 3)로 한국에 이은 3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오는 18일 0시 30분 사우디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파이잘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D조 1위를 상대로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이 8강전에서 승리한다면 일본·요르단 경기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한국은 공 점유율에서는 66.7%로 앞섰으나 슈팅 수에서 우즈베키스탄 7대 8로 뒤졌고, 유효 슈팅에서는 1대 4로 크게 밀렸다.

/연합뉴스



강성진이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프린스 파이살 빙 파흐드 경기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26 U-23 아시안컵에서 공을 다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 공모 선정

국비 5억 3691만원 확보

원은 시체육회 소속 검도, 군대5종, 레슬링, 스쿼시, 철인 3종 등 9개 팀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구청 복싱(1900만원), 서구청 펜싱(5700만원), 남구청 레슬링·양궁(7600만원), 북구청 검도(4671만원)도 공모에 선정되면서 훈련용품 구입과 훈련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국비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체육 인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수들이 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노보드’ 클로이 김,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어깨 부상 회복 순조…최가온과 여자 하프파이프 우승 경쟁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사진)이 2월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클로이 김은 1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 직전까지 스노보드를 탈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올림픽에는 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스위스에서 연습 도중 어깨를 다쳤고, 올림픽 출전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로이 김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됐다”고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클로이 김은 2018 평창,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냈다.

그가 올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승하면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금지탑을 쌓는다.

클로이 김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스키연맹(FIS) 랙스오픈에 불참한다.

또 이달 말 미국에서 개최되는 겨울 액스게임에 도 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클로이 김은 2025-2026 시즌에 월드컵 1개 대회에만 출전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대회 예선만 뛰었고 결선을 앞두고 그때도 어깨를 다쳐 기권했다.

올해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는 클로이 김과 최가온(세화여고)이 우승을 놓고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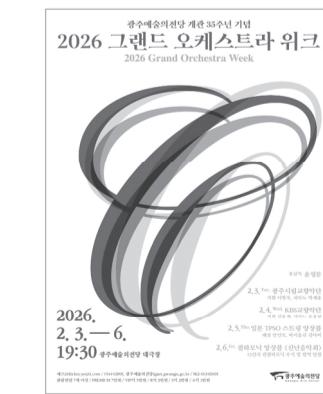
/연합뉴스

줄거운
문화
산책



광주시립교향악단 402회 정기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만남’
일시 : 2026-01-1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